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2년 10월 28일(금) --(음력 10월 4일)-- Пятница 28 октября 2022г. № 42 (1200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21일(금)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고등 학생과 대학생 부 참가자 및 교수. (관련 기사 2면에 게재) (배순신 기자 촬영)

푸틴, 핵 공격 대응 타격 훈련 실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도 아래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핵 타격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밝혔다.

크렘린 홈페이지에 블라디미르 푸틴 군통수권자의 지도 아래 탄도 미사일, 순항미사일의 실제 발사를 통한 지상·해상·공중의 군 억제 전략을 시험했다고 보고했다.

캅차트카의 쿠라 시험 기지 플랫폼 국립 우주선 발사장에서 '야르스'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바렌츠해에 있던 러시아 핵잠수함에서 '시네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투폴레브-95(Tu-95)도 연습 목표물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훈련 기간 동안, 군 조직 비상군 및 지휘부의 훈련 및 군기관들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훈련을 통해 규정된 군 억제 전략의 과제들을 전부 완수하고, 모든 미사일이 목표물을 적중해 타격했다고 전해졌다.

연초부터 1만 명의 사할린 주민들 빈곤에서 탈피

정부 지원정책 덕분에 4,000여 가구의 복지가 향상되었다. 사할린 사회복지 분야 사업 성과가 지난 주에 개최된 제1회 '극동 알뜰 기술' 포럼의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가정의 생활 안정을 향상시키고, 러시아에서 빈곤 수준 감소에 따른 최대 수치에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내세웠다. 올 1월 1일에 사회복지 고려 대상은 사할린 및 쿠릴 주민 3만5천 명(1,1200가구)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까지 저소득층의 수는 2만5천 명(7천 200가구)로 감소했다. 이는 사할린 사회복지부가 도입한 디지털 기반 자료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우리는 빈곤층에게 더욱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을 방문하여 생활안정 개선에 따른 각 개인 맞춤형 계획을 개발했다. 우리는 실제로 빈곤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예를 들면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여성은 유아원 교사로서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녀를 위한 교육을 조성하고, 유치원 교사로 채용함으로써 여기서 2배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사회복지부 사무실을 방문하는 중에 말했다.

모든 가정에 디지털 여권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가정의 소득, 지출, 가정 경제와 적자에 대한 지표

들이 나타난다. 주민과 협약을 맺어 복지 개선에 따른 단계적 조치들과 이것들이 이뤄져야 하는 기한이 차례로 기록된다. 주내 전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올가 오를로와 장관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3분의1 이상이 이미 능동적인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사할린 지역에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고 하고, "현재 공공금도 온라인으로 몇 분 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정비 작업도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돌봄 소통이라는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매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방문할 때마다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고, 복지사들의 앱 기능을 통해 돌봄 받는 분들은 자신의 지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올가 오를로와가 설명했다.

사할린과 쿠릴 지역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65세 이상 돌봄'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과 자원봉사자, 지역 행정 대표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연금 수급자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주에 65세 이상의 고령층 주민은 7만4천 명이다. 일년 내내 이들을 방문하여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교신을 주고 받으며, 요구사항이 실행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단신

주지사, 도네츠크의 샤희츠크스크 방문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특수군사작전 구역에 동원된 사할린의 병사들을 만났다. 주지사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순방하면서 특수군사작전 구역에 복무하는 사할린의 병사들에게 픽업트럭 한 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군인들의 생활여건과 군식품 납품업체를 점검했다.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사할린주가 후원하는 샤희츠크스크도 방문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 위탈리 호첸코를 만나 겨울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대통령 보좌관, 사할린 방문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막심 오레쉬킨 보좌관이 지난 27일(목) 사할린을 방문했다.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돌아보며, 연방의 협력아래 2030년까지 진행되는 투자계획 설명회에 참석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그는 경제 및 사회 관련 여러 중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정부, 사할린 의사 급여 인상 3억 루블리 지급

일전에 있던 러시아 정부 회의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러시아지역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진 임금 인상으로 85개 연방주체에 586억 루블리를 할당하는 가운데 사할린주가 3억 180만루블리를 받는다. 이 자금은 사할린주 예산에 30일만에 지급된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의 중소기업들 대기업과의 교역량을 몇 배로 증가

연초부터 사할린과 쿠릴 지역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의 구매 비중이 470% 이상 늘었다. 이 지표를 따라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기업개발 분야의 높은 성과를 보고했다. 사할린주에는 25개 명목의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장비 구입비를 보상하여 최대 2백만 루블리까지 지원하고, 사업가들에게는 은행 대출 이자 상황도 지원하는데 지원액은 500만 루블리까지다.

러시아, 코로나 19 신규 변종 발견

러시아에서 2가지의 신종 코로나19가 발견된 가운데 하나는 오미크론의 아종인 제르베르가 국내에서 앞으로 확산될 거라 예상된다고 소비자보호감독청의 안나 포포와가 밝혔다. "지난 주 러시아 연방에서 두 개의 유전변종을 발견했다. 이들은 BQ.1 및 BQ.1.1이다"라고 포포와가 전했다.

이 변종 제르베르(BQ.1.1)는 오미크론 BA.5의 돌연변이이다. 이 변종들은 9월에 유럽의 일련의 국가들에서 발견되었으며, 오미크론보다 20%-30%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30개 국가들에서 발견되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일제 강점기 사할린 한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IN은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할린 한인 학살에 대한 정부 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서면 질의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내용은 아래에 게재한다. (새고려신문사 편집부)

[KIN(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김홍걸의원(무소속), 국정감사에서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 등 지적(서면제출)

10월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홍걸의원(무소속)이 서면 제출한 질의에 따르면 "무관심 속 방치된 사할린 한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외교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국무회의 논의 등이 필요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과 관련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지난 1월 9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변화 등이 있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은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 선언 이후에 민간인 자경단과 경찰, 헌병 등이 학살을 저지른 '전쟁범죄'를 말한다. 소련군의 재판기록을 통해 기존에 밝혀진 바로는 가미시카 8월 17일, 시스카와 에스토루 8월 20일, 미즈호 8월 22일에 벌어진 사건이다.

(7면에 계속)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 출장소와 함께 2023년 달력 발간

지난 22일(토)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에서 한민족 전통 문화' 행사가 개최되었다.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 한인 관련 역사, 예술, 민속학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루어졌고, 행사는 사할린 한인 관련 주향토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2023 달력 출판기념회나 다름 없었다. 달력 출판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가 후원하였다.



주향토박물관 유리 알린 관장은 행사 참가자들을 따뜻이 환영하며,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이 행사를 찾아올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린 관장에 따르면 박물관은 장기간 사할린 한인 문화 및 역사 알리기, 이와 관련된 자료 및 물품 수집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러시아어로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문화재에는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달력 속 손때묻은 민속 문화재들을 보면, 우리 한인 동포들이 고국을 떠나 사할린에 정착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간직하고자 했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한국 민속 문화재 달력을 통해 더 많은 사할린 주민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장소와 사할린 향토박물관은 이번 달력 발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주향토박물관의 부장 진 울리아 역사학 박사는 사할린 한인 이주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하이 울가 연구 전문가는 동 미술관의 한반도 예술 컬렉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 향토박물관 소장품 관리자인 김영희씨는 향토 박물관에서 사할린한인 연구 역사를 말했다. 처음부터 사할린 한인 관련 연구와 물품 수집 작업을 담당하게 된 김영희 관리자는 이 역사는 1986년에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그 당시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구역을 다니면서 1세분들과 많은 인터뷰도 하고, 한인들의 사용하는 그릇, 가구(밥상, 장 등)를 소장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 중에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향토박물관에서 한국에 관한 퀴즈도 준비했다. 최고 점수를 받은 10명에게는 한국 물품 상품권이 주어졌다.

행사가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날 소개된 2023년 달력을 배포했다.

(배순신 기자)



지난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아래에 최경욱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최경욱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역임

(전화의 계속)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신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1997. 12. 13. 법률 5431호로 전문 개정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개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의 이름으로 이주되어 갔던 조선인들이며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영주귀국 대상자를 결정짓는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날짜와는 무관하게 그 후손들은 출생한 당시에 그 부모가 조선인이었으므로 그들도 조선인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선택이었던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인'이란 대한제국 말기에 민족에 기재되었다가 1923년 이후에는 이를 대체한 조선 호적령에 입적한 자를 말하며, 동 조선호적 입적자는 임시조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았으며, 그 후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손들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는 우리 국적법이 혈통주의 이외에도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한국인' 범위를 반드시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사할린 한인 후손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나, 해방 이후 일본은 이들을 귀환시키지 않았고, 소련은 그 당시 국내 노동력 문제를 들어 한인들을 출국시키지 않으려 하였고,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 일본에서 돌아오는 국민들과 국내 문제도 복잡하여, 이들을 데리고 올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결과 그 당시 국제적 여건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이후 소련과의 국교 단절 등으로 사할린 한인들의 귀국은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48년 정권수립과 동시에 소련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1950년대에 들어서는 사할린 한인에게 북한 국적을 취득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북한국적 65%, 소련국적 25%, 무국적 10%였으나, 현재는 북한국적 25%, 소련국적 70%, 무국적 5%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는 소련과의 국교가 성립되어 장애요소가 제거되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국적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현재도 한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에 관하여 단지 영주귀국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만 보인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자기나라 국민은 1959년까지 진행된 사할린 내 일본인 인양시에 타민족 가족도 인양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독일은 독일 기본법 제116조에 따라 직계 조상 중 한쪽만이라도 독일계이면 귀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 제12조 4항에는,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할린 한인들 1세와 그 후손들은 당연히 혈통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여

전히 무국적자로 있는 사람들, 또는 필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소련 국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오늘날 한국 정부는 국적판정 제도를 내세워 이들에 관하여 국적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본인의 국적을 한국 정부가 판정할 권한이 없으며, 나는 당연히 사할린 한인 1세의 후손이므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이 위 사건 2에 관한 것이다. 국적확인 국적판정에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적법과 혈통주의

가. 조례와 법률의 효력

앞에서 살펴본 국적과 관련된 법(표2)를 참조하여 아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적법」(1948년 12월 20일)에서는 출생에 의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라고 규정하여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적법 제정 이전에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1948년 5월 11일 제정) 제1조에서 "본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여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제2조는 "좌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2.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또한 제5조에서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여 두었다.

이에 관하여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례의 계속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조선 호적이 있는 자와 일본 호적이 있었다가 이탈한 자는 조선국적자가 되고, 이 조선국적자는 「국적법」 제정 이후 한국 국적자로 자동 전환되는 걸로 본다' 반면에 조례의 계속적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에서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적법에서 입법적 불비를 지적하며 이를 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견해로는, 호적에의 등재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국적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적으로서 한인을 분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나, 조례와 법률의 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 '조선 호적이 있는 자와 일본 호적이 있었다가 이탈한 자'는 「국적법」 제정 이후 한국 국적자로 자동 전환되는 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의 후손 또한 혈통주의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국적법 제정 당시 풍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후에 국적법이 제정되던 당시를 살펴보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와 그 후손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 의견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국회의 자세는 재외한인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노영돈, 위의 논문.

(다음호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алендари с корейской тематикой презентовали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22 ок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о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70 человек проявили живой интерес к выступлениям по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и этнограф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стей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директор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рий Алин и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 г-н Пак Сан Тхе.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я Дин сделала краткий обзор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оказа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с как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столкнулось, в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оказалось в новом месте.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Ольга Хай раскрыла тему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Кореи в проект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скусствовед рассказала о том, как устраивались выставки раньше, с чьей помощью это происходило, как формировался фонд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Хран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им Ен Хи рассказала о том, как в музее начались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корейскую тему, о первых экспедициях по сбору сведений и предметов быта, одежды, письменных принадлежностя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календарей на 2023 год, содержащий в себе фотографии и описание предметов из собр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здание календарей состояло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 В этот день все пришедшие в музей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лучили календари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ов.

Состоялась также небольшая викторина по Корее, победителям которой вр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в магазин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Слушатели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содержанием мини-лекций и подарком – календарем.

Анна Нарынская,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21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в стенах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о традиции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известно, 2022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оэтому тема конкурса этого года прозвучала, ка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народов: к пониманию через знания».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более 20 лет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 лиц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на открытии мероприяти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и островной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и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 Пак Сан Тхе.

Жюри конкурса в составе -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ёнг Иль,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им Яна Сенайевна, директор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г. Пу-сан Тен Ен Сун. - пришлось нелегко в определении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В этом году 38 человек заявили о своем желан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что стало рекордным за все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й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ожелали не только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и учащиеся школ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но также и школьники из Красногорска, Холмска, Долинска и Корсакова.

Участники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по уровню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на две группы. Школьники средних классов, которые только начинают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должны были декламировать на выбор одно из трех стихотворений (танец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масками тхаль; ритуальный танец Канкансулле, посвященный сбору урожая и плодородию; традиция заготовки кимчи - кимджан).

Перед студентами и учащимися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стояла задача посерьезнее: им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одготовить уст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рамках заданной темы «Мы столько видим, сколько знаем».

Выступающие на креатив не скупились. Кто-то выходил на сцену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корейском костюме ханбок, кто-то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масками тхаль, а кто-то даже сопровождал чтение стихов танцами. Участники проявили себя с разных сторон и сделали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их выступление запомнилось, ведь на оценку влияет не только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и умение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но и творческий подход к заявленной теме, артистичность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мультимедий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перерыве между основной частью конкурса и награждением студенты ИФИИВ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и K-POP. Участникам бы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красиво украсить карточки с фотографиями своих любимых K-POP айдоллов.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среди учащихся средних классов 1-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и Арина Шамова и Милана Со (Корсаков СОШ № 2, 7 класс, преподаватель О Дем Сун), на 2-ом месте - Анна Мэтис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9 класс,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к Ген Сук, на 3-ем месте - Арина Мильченко (гимназия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6 класс, преподаватель - Шелохаева Л.В.).

Победителем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стал школьник из Холмска Константин Цзю,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Ли Е.М.), 2-е и 3-е место у студентов ИФИИВ СахГУ - Елизаветы Якимовой и Мархабо Абдурахмоновой.

Были также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в специальных номинациях, все они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и грамоты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т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Анна Нарынская,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Читатели в роли литературных критиков

Казань, 24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На базе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реи «Корееведение» прошел второй конкурс читательских рецензий по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Рецензируем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стала книга Пак Мингю «Коврижка». В период с 22 августа по 25 сентября был открыт прием заявок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им литератур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Количеств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участии в конкурсе удивило – почти семьдесят читателей.

«Коврижка» является сборником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писанным культовым пис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Пак Мингю в 2005 году. Эта книга состоит из десяти небольших рассказов. Основным жанром произведений стала проза. В конкурсе предоставля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написать рецензию в двух видах: эссе и фанфикшен.

В состав жюри входили извес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декан высшей школ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Элмира Хабибуллина,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алтаистики и китаеведения Рузем Мухаметзянов,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НОЦ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еи «Корееведение» Ко Ен Чоль, писатель, поэт, переводчик,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Чувашии Айрат Галимзянов, татарский писатель и поэт,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Марат Закиров. Жюри отобрало 12 работ, признанных лучшими. Это Захарова Яна, занявшая 1-ое место, Сердюкова Любовь, занявшая 2-ое место, и еще 1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заняли 3 место. Среди них Алексеев Вадим, Андреева, Ганенкова Виктория, Гиливанова Карина, Деятелилова Юлия, Демина Дарья, Кирьянова Анна, Кондрашевская Руслана,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дипломами и памятным подарками.

Лебедева Анастасия и Фазельханова Алина.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были татарский писатель и поэт,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Марат Закиров и писатель, поэт, переводчик,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Чувашии Айрат Галимзянов,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в качестве жюри. Гости выразили больш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в участии в конкурсе и пожелали победителям дальнейших творческих успехов.

Институт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евода Кореи также поздравил всех победителей и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Профессор Ко Ен Чоль, от лица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также выразил сво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конкурса и пожелал им успехов во всех начинаниях.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вновь подтвердил готовность к диалогу с Пхенья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овместно с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д тем, чтобы северо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юг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могли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23 октября на открытии спорти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перебравшихся в РК.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на стадионе Хёчхан в столичном округе Ёнсан-гу. Хан Док Су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Сеул будет жёстк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 действиям Пхеньяна, полагаясь на сильную армию и союз с США.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явил, что Сеул, обеспечив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угрозы, намерен работать над формированием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здравом смысле. По его словам, Сеул всегда открыт к диалогу с Пхеньяном, в том числе, в сфере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Хан Док Су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семьи Юга и Севера смогут собраться вместе.

Сеул продолжит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с Пекином

Сеул продолжит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здоровых и зрелых» южн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духе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4 октября в связи с избранием Си Цзиньпина на пост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итая на третий срок. Си Цзиньпину направлено официальное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ослание от имени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В 2012 году тогдашн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Мён Бак направил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ослание Си Цзиньпину, когда он был впервые избран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КПК, а в 2017 году аналогичное послание направлял Мун Чжэ Ин.

ВМС РК проводят масштабные учения

ВМС РК сообщили о проведении с 24 по 27 октября масштабных учений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ухопутных и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морской полиции, а также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ША. Их цель - повышение операти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 провед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морских операций в рамках укрепления общей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ВМС РК привлекли к манёврам около 20 кораблей, включая фрегаты и эсминцы, оснащённые многоцелевой системой слежения и наведения AEGIS, а также морские патрульные самолёты и вертолёты. Сухопутные войска задействуют вертолёты Apache, а ВВС - истребители F-15K и KF-16. С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в учения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ертолёты Apache и штурмовики A-10. В ходе учений отрабатываются действия по выявлению и уничтожению сил противника в районе северо-западных островов РК в Жёлтом море. Все действия отрабатываются в условиях,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ённых к боевым. Данные манёвры проводятся ежегодно в рамках полевых учений «Хогук».

Статуя «Девочка мира» появится в Аргентине и Нидерландах

Статуя «Девочка мира»,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памятником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а в Аргентине и Нидерланд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женщин,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Ли На Ён, выступая на еженедельном митинге перед посольством Японии в РК. В Нидерландах проект установки памятника продвигается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не из чис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Буэнос-Айресе статуя решено разместить в здании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училища, где в период военной диктатуры погибло много людей. Сегодня это место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борьбы за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Ожидаемая инфляция в РК выросла до 4,3%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ожидаемая инфляция, то есть, прогноз роста цен в течение года, составила в октя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4,3%,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0,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на сохранени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инфляции повлиял рост тарифов на газ и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увеличение цен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и услуг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Уровень восприят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указывающий на их рост, ощущаемый потребителями, вырос на 0,1%, составив 5,2%.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составил 88,8 пункта, сократившись на 2,6 пунк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ентябрём. Показатель ниже ста пунктов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еобладание пессимистиче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над оптимистическими. Данные об ожидаемой инфляции тщательно отслеживаются, поскольку её рост может побудить население требовать повышени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з-за ожиданий снижения их реальной покупатель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ост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может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стимулировать и без того высокую инфляцию.

(RKI)

Стрельба над Желтым морем: КНДР и Южная Корея ходят по краю войны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цидент грозит обернуться серьезным обострением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ано утром 24 октября, еще до рассвета,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районе морской границы в Желтом море обменялись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ми выстрелами, обвинив друг друга в нарушении границы. Стороны предъявили выгодные для себя версии инцидента, но эксперты опасаются, что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который наблюдаетс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ожет перерасти в серьезный конфликт с человеческими жертвами.

По верс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которую озвуч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4 октября, в 03:42 утра, в акватории Желтого моря

в 27 км к северо-западу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строва Пэннёнд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рузовое судно «Мухо» зашло на 3,3 км на юг от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Северной разделительной линии (СРЛ), которая выполняет роль морской границы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На перехват нарушителя выдвинулись фрегат и несколько сторожевых катеров ВМС РК, а также в воздух были подняты истребители KF-16 и в боевую готовность приведены расквартированные на Пэннёндо части морской пехот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моряки дважды по связи потребовали от судна «Мухо» вернуться в воды КНДР.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О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цензия на новую книгу Германа Ким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40)

Кому интересна и будет полезна книга? Любопытнее из числа корейцев сарам, захотев узнать историю своего рода, непременно столкнется с вопросом об истоках рода и первым подспорьем ему в поиске ответа окажется именно эта книга. Может он и не найдет в ней прямого ответа на свой вопрос из-за скудности исходных данных (многие современники мало что знают о своих предках), но в своем любопытстве он придет к знаниям об истоках всех корейцев сарам, - это уже немало, а может обнаружится и какая-то другая ниточка, дарующая надежду найти, все-таки, какие-то следы своих предк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 достоинствах книги можно сказать ещё многое, но конечно, её стоит прочитать, а ещё лучше - иметь в своей библиотеке.

Возможно, самое ценное в книге, что она, как найденный кончик запутанного клубка, может помочь разобратся в сложном переплетении извечных вопрос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нас по жизни: о нашей родине, о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об утраченном родном языке, о том, какое может быть будущее у диаспоры и у корейцев 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Ясных ответов возможно мы никогда не найдем, и вопросы эти будут волновать нас всегда и может именно это беспокойство позволит сохранять самобытность нашего этноса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 во времени...

Читателям книги советую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и рекомендуемой литературы. Особенно на книги Валентина Пака (в списке они под номерами 100-105), объединенные лейтмотивом «Земля вольной надежды»

и включающие тома: «Первы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книга 3;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1860-1880 годы» книга 4; «Раздольное: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и личности» книга 5 и книга 6; «Депортация. 1937: Архивные списки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Книга 7. Читателю доступны электронные варианты книг, их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на Литрес. И хочется выразить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таким авторам, как Валентин Пак, за их книги, за большой труд, за проект по изданию нужных нашему обществу книг. И как было бы здорово, если подоб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книги были изданы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скажем, с 1937 по 1991 год.

И ещё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Приморье мало что осталось от прежних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й, местные краеведы веду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истории края, в том числе,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Есть замечательный и очень содержательный сайт -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навигатор «Переселенческий пункт» - <http://relocation.pgpb.ru/about.html>. Сайт объединяет многие ресурсы различ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располагается на сайте Приморской краевой публи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им. А.М. Горького и создан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ИИАЭ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ГАПК, РГИА ДВ и клубом "Находкинский родовед".

Знакомая с историей жизни наших предк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даешься вопросом: а что думали наши предки о родине и о родном языке, на что надеялись, какие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строили они, какого будущего желали своим потомкам, что завещали? ...

Завершается книга уникальной картой бывших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й на русском и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64-1937) из Уссурийского музея, составленной в 2019 году усилиями 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дседателя Уссури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лександра Мезенцева и коллектива музея. Всего на карте отмечено 67 деревень и сел, а также множество безымянных хуторов и фанз, из котор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Уссури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охранилось 37.

Далее автор пишет, как о своей мечте: «Электронная карта многих сотен корейских сел, деревень, выселков, хуторов, заимок и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 указанием названий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годом основания и числом жителей ещё не создана. Сведения настоящей книг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при её составлении».

У книги нет эпилога, но автор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предложении словно ставит в конце многоточие и призывает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над этой темой.

P.S. Вызывает большое сожаление тот факт, что выпуск таких интересных и полезных книг мало зависит от самих авторов, - если не найдены средства для издания, она так и останется в столе. Конечно, сейчас можно издавать книги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но это другое.

Наверное диаспоре, осознанно стремящейся самосохраниться, следует позаботиться, чтобы была надежная система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и связи поколений, чтобы огромное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не пропадало и терялось, а сохранялось и накапливалось.

Георгий КАН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крыта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3 регионов по внедрению платформы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начала года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правили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около 3,5 тысяч обращений. Чаще всего они касались дорог,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медицины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редний срок ответа составил семь дне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этой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зглавила федеральный рейтинг вместе с 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ом.

Основная цель платформы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ПОС) – быстрое решение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граждан. Направить свое обращение можно через форму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Госуслуги. Решаем вместе» или баннеры на сайта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на сай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расположен на основной странице слева). Здесь можно выбрать любую тематику – о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о интернет-услуг. Также платформа позволяет проводить опросы, голосова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суждения.

Запуск нов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 часть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Цифров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цпроекта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дрять платформу начали в 2020 году.

–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у нас подключены вс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и органы власти, а также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больницы, школы, орган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другие – всего 735 учрежде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региона. Инструменты ПОС позволяют региональным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 властям анализировать жалобы и предложения граждан и исходя из эт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инимать важные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решени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 Мы регулярно организуем обучение ответственных за работу в систем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тодикой, проводим анализ поступающе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обработки жалоб, стараемся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роки ответов для повышения удовлет-

воренност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 добавила администратор баз данны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Алиса Жукова.

С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качество и сроки ответов на об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нтролирует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 Благодаря четко отстроенному областной власть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всех исполнителей, за прошедшие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почти 99% обращений граждан в разделе Госуслуг «Сообщить о проблеме» получил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ответы и решения своих проблем,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ЦУ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Кро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еще дву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территории в Томаринском и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ах – в Ильинском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площадку около Центра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на месте пустыря разбили сквер.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благоустроили 17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Работы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Обустройство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позволяет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делать досуг более разнообразным и интересным. За счет региональ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площади, на месте пустырей создают аллеи и скверы, где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могут уединиться или общаться с друзьями. Ход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находится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боте остаются еще 11 объектов, 3 из которых – переходящие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 площадке в Ильинском обустроили тротуар, установили скамейки, урны, вазоны, а также систему освещ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здесь появилась детская зона с резиновым покрытием, горкой, качелями и песочницей.

В сквере, обустроенном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смонтировали освещение,

установили скамейки, урны, многоярусные клумбы и беседк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ысадят саженцы кустарников и деревье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открытию сквера. На него будут приглашены все жители села.

–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и, когда у нас появится новый сквер. Получилась прекрасная зона отдыха. Наши дети будут гулять здесь каждый день, – отметила Анна, жительница одного из домов по улице Шахтовой.

Сейчас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а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Так, более чем на 90 процентов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в сквере Авиатор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квере памяти в селе Ныш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возле бассейна в Холмске и на площадке для выгула собак в Макарове. На объектах осталось установить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и провести озеленение.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в Ох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сквер у памятника воинам-охинцам, павши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бновл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ились в Долинске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Севастьянова, а также в сквере имени А. П. Чехова. В Курильске преобразили сквер искусств, а в Чехове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благоустроили сельскую площадь. Кроме того, мемориальная площадь появилась в селе Арги-Паг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бществ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при Аллее славы обустроили в Макарове.

Отметим, в этом году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28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едусмотрели 470,9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76,7 миллиона –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еречень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ланируемых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формируется на основании ежегодного рейтингов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ходит на платформе: gorodsreda.ru. В 2022 году это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ходило с 24 апреля по 31 мая.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чти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был сформирован перечень из 2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одлежащи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 2023 год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ельба над Желтым морем: КНДР и Южная Корея ходят по краю войны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цидент грозит обернуться серьезным обострением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Когда требования были проигнорированы, военные РК из пулемета М 60 произвели две серии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х выстрелов – по десять выстрелов в каждой. В итоге, примерно через ча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судно вышло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д и ушло в сторону Китая. Вот что говорят южане: когда к «Мухо» примерно на километровую дистанцию приблизи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торожевой катер, то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ян прозвучало требование покину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ды. Затем, уже в 05:14 с мыса Чансанко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артиллерия произвела 10 выстрелов, применив в том числе артиллерию.

Спустя менее часа после выстрелов Генштаб ВС КНДР озвучил свою версию произошедшего.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ям из Пхеньяна,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рабля под фальшивым предлогом нарушения границы неизвестным судном сами вторглись в воды КНДР на расстоянии от 2,5 до 5 км, после чег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извела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е выстрелы с задействованием реактивных систем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Кроме того, от южан потребовали прекратить провокации.

Словесные баталии на этом не закончились. Южнокорейцы заявили, что они границу не нарушали, их корабли находились строго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дах и даже пули после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х выстрелов не попали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КНДР обвинили также в очередном наруш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о мерах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которые запрещают проводить стрельбы и учения в рай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буферной зоны в районе границы, разделяющей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Разные версии произошедшего во многом объясняются спорным статусом Северной разделительной линии. Она была прочерчена по итогам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1953 году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американской 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и проведена крайне невыгодно для КНДР. Пхеньян эту морскую границу не признает, но обычно действует так, будто она существует, хотя и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с его точки зрения линия проходит иначе.

Обычно Юг и Север стараются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но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разногласия доходят до конфликтов со стрельбами, морскими боями и человеческими жертвами. Во многом расхождения по поводу СРЛ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морские стычки Юга и Севера в Желтом море в 1999, 2002 и 2009 годах. Кроме того, обстрел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строва Енпхендо в ноябре 2010 года также случилс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южане произвели стрельбы в воды, которые КНДР считает своими.

Проблема еще и в том, что чаще всег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делает особого акцента на несправедливом с ее точки зрения статусе СРЛ. Но иногда Пхеньян «вспоминает» об этом. Обычно (хотя и не всегда) периоды таких обострений совпадают с общим осложнением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в предыду-

щий ра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корабль намеренно нарушил границу почти шесть лет назад – в начале 2017 года. Тогда отношения двух Корей были напряженными, но затем наступила политическая «оттепель»,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ла провести несколько меж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ов. Поэтому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в Желтом море все было спокойно. Если корабли КНДР и нарушали СРЛ, то ненамеренно – из-за поломки двигателя или ошибки рыболовецких судов при навигации.

Сейчас же в отношениях Юга и Севера вновь наступил «ледниковый период». На Юге к власти пришел проамерикански настроенный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который не скрывает своего намерения оказывать давление на Север, используя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илу.

Опасения вызывает тот факт,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налицо накопление «критической массы»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возобновили проведени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маневров с явным прицелом против КНД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также не остается в долгу, проводя одни за другим испытания самых разных ракет, а также стрельбы из РСЗО и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орудий. Все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На днях дело доходило даже до противостояний десятков самолетов ВВС РК и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Пхеньян недавно обнародовал свою де-факто ядерную доктрину, не исключив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еул, Вашингтон и Токио реагирую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м, мобилизуя авианосцы, подводные лод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и обещая КНДР устроить «полную аннигиляцию», если та попытается пойти на серьезные провокации.

Эксперты опасаются, что чаша терпения обеих сторон скоро переполнится и в итоге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конфликт со стрельбой на поражение и жертвами. И хотя вряд ли дело дойдет до ядерной войны, но, учитывая очень воинственный настрой как южан, так и северян, а также желание США преподать урок КНДР, то какой-то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цидент типа того, что был утром 24 октября, може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серьезный бой и резкий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круг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роме того, США и союзники уверены,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может снова произвести со дня на день одно или даже несколько испытаний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Хотя такие предсказания делаются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одряд, но сейчас ситуация, как считается, очень подходящая: в КНДР завершился съезд партии, когда Пекину нужна была «тишина», что Пхеньян хорошо понимал, а теперь же можно уже действовать. В ответ на очередные испытания Вашингтон и Сеул обещали Пхеньяну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ответ», правда, не вдаваясь в детали.

Олег Кирьянов
(News.ru)

Фильм «Чон Сун» отмечен двумя наградами на Рим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Фильм «Чон Сун» режиссёра Чон Чжи Хе отмечен двумя наградами на 17-м Рим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ась 22 октября в музык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Аудиториум». Картина завоевала гран-при жюри, а актриса Ким Гым Сун,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главной роли, получила приз за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имени Моника Вити. В основном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овали 16 фильмов.

KBS World

Снимаются последние ограничения для безвизового въезда

Сеул, 21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1 ноября процедуры безвизового въезда в Южную Корею полностью возвращаются в нормальное русло, поскольку страна снимает номиналь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для восьми оставшихся стран.

Восемь стран — это Япония, Макао, Тайвань и пять тихоокеанских островных государств — Кирибати, Микронезия, Самоа, Соломоновы острова и Тонга.

Южная Корея разрешила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из 112 стран до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 после пандемии действие был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для 91 из них. Все затронутые страны, кроме восьми, с тех пор снова прошли квалификацию по принципу взаимности.

Но фактический эффект будет минимальным, поскольку японцы, маканцы и тайваньцы уже смогли въезжать в страну с августа по временному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на время летних отпусков, который позже был продлен до октября.

Сделать соглашение постоянным было лишь формальностью, поскольку восемь стран только недавно возобновили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для южнокорейцев.

Пассажиры круизных лайнеров также могут свободно высаживаться с 24 октября впервые за два года и восемь месяцев с тех пор, как это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 экипаж и пассажиры должны будут надевать маск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 столовых на корабл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аранти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Если у кого-либо из них будет выявлен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теста на COVID или температура, им не разрешат высадиться на берег.

[KIN(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김흥걸의원(무소속), 국정감사에서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 등 지적(서면제출) (3면의 계속)

이러한 사실이 지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조사와 당시 사할린 동포들에 의한 증언으로 가미시카 사건은 2007년에, 미즈호 사건에 대해서는 2008년 진상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그 이후 추가 자료 등의 확보,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15년에는 카미시카 사건 외에 시스카(敷香, 포로나이스크 Поронайск)에서도 한인들을 경찰서에 가둔 채 소방호스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학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 2019년에는 KBS의 취재로 미즈호마을 사건의 경우 희생자가 27명이 아닌 35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 기존의 보고서와는 다른 결론이다. 러시아 사할린 향토박물관의 진올리야박사(동포 3세)는 미즈호 마을 사건에 대한 심문조서, 재판 기록물 등 그 동안 비밀문서였던 자료들을 2021년에 받았다. 2019년 KBS의 사할린 현지 취재를 계기로 이들 비밀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러시아의 비밀문서가 70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비밀해제되어 사할린 향토박물관 문서 보관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8월 15일에는 러시아 보안국에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으로 기밀해제된 문서를 전달했다. 미즈호, 카미시카 및 우글레고스크 등 기타 마을들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학살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 추가로 비밀해제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증거와 주장들이 제기되는 만큼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희생자들을 파악함으로써 유해수습, 희생자 위령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해수습 등은 시도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법에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외교부] 무관심 속 방치된 사할린 한인 집단학살 사건

◆ 사할린 한인 학살

8월 15일 광복 이후 사할린의 가미시카, 시스카, 에스토루, 미즈호 등지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 학살 동기로는 △한국인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한국인이 소련군을 안내하고 있다는 소문(소련의 스파이)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인의 죄악을 소련군에 폭로할 것이라는 점이 있음

○ 우리 선조들은 머나먼 러시아 땅에서 광복의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인들에서 잔혹하게 살해됨. 심지어 6개월 된 갓난아기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살됨.

- 가미시카 학살은 일본 경찰들이 조선인들을 총으로 죽이고 증거 은폐를 위해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사건. 재판 기록에서 학살을 주도했던 일본 경찰들의 체포명령서가 발견되었지만 가해자들의 행방은 74년째 오리무중인 상황

- 시스카 학살은 조선인들을 산채로 경찰서에 가두고 소방호스로 휘발유를 뿌린 후 방화한 조직적 범죄 사건

- 미즈호 학살은 마을 일본인들이 의용전투대를 결성한 뒤 '상부의 지시'라며 조선인들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 희생자 일부는 냉동창고에 갇힌 뒤 동사

-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에스토루 지역에는 조선인 1만 229명이 살았지만, 전쟁 후 5332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함. 당시 소련 측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이유로 피난·귀환과 함께 일본의 집단 학살을 지목

○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 러시아 사할린 에스토루 지역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한인 학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언을 확보했다고 함. 행안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무부처로 ○ 담당했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됨. 2005년 한 일본인이 위원회로 '사할린 가미시카 학살 사건' 진상 조사를 요청함.

1. 장관, 당시 공동 주무부처였던 외교부는 '사할린 가미시카 학살 사건'의 진상 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2. 이 사건 이외에도 위원회로 사할린 한인 집단학살과 관련된 진상 조사 요청이 들어온적 있는가.

3. 현재까지 외교부에 사할린에서 자행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이나 청원은 없었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은 폐지. 행안부에 따르면 사할린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은 진행 중이나, 진상 규명에 관한 법령과 사업은 전무.

- 사할린에 남은 동포들은 진상규명을 통한 치유를 고대하고 있음. 사할린에서 자행된 일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는 데는 외교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또한, 사할린 동포들과 깊이 관련된 사항인 만큼 외교부의 주도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4.1 사할린 조선인 학살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 4.2 외교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행안부와와의 협력이나 국무회의 논의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 외교부는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및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 신설을 고민해보길 바람

제20차 세계한상대회 20년 한상 역사 쓴 신.구 한상 총출동, 시너지 기대

경험으로 무장한 1세대 한상, 주류사회서 맹활약 차세대 한상 시너지 효과로 경제 도약의 동반자로 거듭날 것 글로벌 거상에서 전세계 차세대 한상까지 세대, 지역, 분야 막론한 경제인 집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에 전세계 40여 개국 2,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 참가하는 한상들의 라인업이 화려하다. 인도네시아 승은호 회장, 미국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등 1차 세계한상대회부터 큰 획을 그어온 글로벌 거상부터 미래한상 네트워크를 책임질 차세대 한상까지 신구한상의 조화를 눈여겨 볼 만하다.

그중에서도 올해 대회장인 김점배 알카오스트레이딩 회장이 눈에 띈다. 인도양의 터줏대감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5척의 트롤망 선박을 보유하고 인도양의 소말리아 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을 진행하는 원양어업 기업을 이끌며, 오만은 물론,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지원은 물론, 현지 사회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하며, 모범적인 한상의 모습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울산 출신 한상도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에 1천 2백여 명의 직원을 둔 자동차 부품 제조 강소기업을 운영하는 박기출 PG홀딩스 그룹 회장은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대학교 건축학을 전공했다. 그는 역대 연봉의 회사 생활을 접고 40대에 독립해 성공한 대표적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린다.

차세대 한상 중에는 말라위, 콜롬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한상들이 눈에 띈다.

- 김태영 K-2 트랜스포머스 대표이사는 말라위 최고의 변압기 생산 공장이자, 말라위 전력 공사의 최대 협력업체로 인정받는 젊은 한상이다. 지역 상

생을 위한 공장 내 학교 설립으로 교육과 취업이 연결되는 모델로 말라위 경제와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콜롬비아에서 커피생두, 농산물 포장재 기업인 (주)라티나를 이끌고 있는 오종인 대표는 대한민국 국적자 최초로 콜롬비아 커피수출 자격증을 취득해 한국으로 콜롬비아 커피를 수출하며, 중남미 내 비즈니스 정착을 돕는 한국인 기업가로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 남아공에서 25년째 거주 중인 아프리카 시장 내 젊은 한국 기업가인 박빛아 ENERGY21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는 흔치 않은 여성 기업인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리더다. 남아프리카에서 에너지 관련 정부 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한국과 남아공의 수출입 교류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포럼 최연소 참가자이자 미국 내 상업 부동산 전문 컨설팅과 브로커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누리 '세빌스' 한국 기업 서비스부장, 베트남의 반도체 생산용 케미컬 유통회사 'LET & Company'의 현경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차세대 한상들이 영비즈니스리더포럼(YBLF)에 신규 참가한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가진 1세대 한상들과 창의력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차세대 한상들이 20년 동안 축적한 '한상 네트워크'로 모여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의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31일 오전 11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A홀에서 '제20차 세계한상대회'의 개막 기자회견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안산시, 노인의 날 기념 고향마을 한마당 경로잔치 개최

이민근 시장 "어르신들이 한국사회에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경기 안산시는 지난 21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2022 고향마을 한마당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2일로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날로, 시는 매년 노인의 날을 전후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고향마을복지관에서 열린 행사는 이민근 시장, 사할린동포 어르신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만들린 연주 식전공연 △사할린동포 복지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 △북공연, 건강댄스 등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타국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고 돌아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어르신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해 정착한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현재 72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돼 수십 년 동안 잊혔다가 영주귀국사업으로 2000년 초부터 입주했다.

(신아일보)



경기 안산시는 지난 21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2022 고향마을 한마당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주민들, 300만 루블리의 사기 피해를 당해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 내무국이 51세(여)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피해 여성에게 익명의 사람이 전화해 피해자의 은행계좌와 관련된 사기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통보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 여성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지시된 전화번호로 보내야 한다고 말해 그대로 했다. 피해 여성이 그렇게 하여 입은 피해액만 150만 루블리 이상에 달했다.

또 다른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52세(여) 주민에게는 전화로 자신을 익명의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어떤 사람이 여성의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취소하려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이 피해자는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61만 5천 루블리를 송금하였다.

또 다른 56세 여성은 10만 5천 루블리의 피해를 입었다. 이 여성에게는 익명의 사람이 전화해 자신을 모스크바주의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이 여성과 관련된 반국가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후 익명의 남성은 휴대전화 앱으로 전화해 이 여성의 이름으로 170만 루블리의 대출 신청서가 은행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의 지시로 여성은 은행으로 가서 위 금액의 대출액을 받으려 했으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

자 그녀는 자신의 계좌에 든 적금1십만5천 루블리를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했다.

포로나이스크에서 66세의 여성은 자신을 은행 보안서비스 직원이라 소개한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이 여성의 은행 계좌에서 사기꾼들이 돈을 빼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지시로 남성은 저금(27만9천 루블리)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결제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여성은 그대로 했다. 이후 여성은 온라인으로 30만 루블리의 대출을 신청해 이 돈도 사기꾼에게 송금했다. 이 여성이 입은 피해액은 57만9천 루블리에 달한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50세(남)의 코르사코브 주민은 16만5천 루블리의 피해를 당했고, 네웰스크의 30세 여성 주은 익명의 남자의 지시로 18만 루블리를 대출해 사기꾼에게 송금했다.

이 모든 사실에 따라 발생한 범죄사건들을 수사 중이라고 주 내무국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отдали еще 3 миллиона мошенникам

В УМВД России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поступило заявление от 51-летней местной жительницы. Потерпевшей позвонили неизвестные и сообщили, что в отношении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заявительницы совершаются мошенн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Звонившая сказала,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в разных банках получить кредиты, а деньги отправить на указанные номера телефонов, что заявительница и сделала. Сумма ущерба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1,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52-летней жительн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банка и

сообщил, что неизвестные оформляют кредит на её имя. Чтобы аннулировать его,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ести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Потерпевшая перевела неизвестным 615 тысяч рублей.

Другая 56-летняя горожанка лишилась 105 тысяч рублей. Женщине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представился следователем из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ообщил, что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щины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измену. После чего мужчина позвонил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 сообщил, что на её имя подали заявку в банк на получение кредита на сумму 1 700 000 рублей. По его указанию женщина направилась в банк, где попыталась взять кредит на данную сумму. Кредит ей не одобрили, тогда она сняла имеющиеся накопления — 105 тысяч рублей и перевела на продиктованные номера.


В Поронайске 66-летней женщине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и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банка. Мужчина пояснил, что мошенники пытаются списать с ее счета средства. В дальнейших указаниях он предложил обезопасить сбережения (279 тысяч рублей) и перевести их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что заявительница и сделала. После заявительница оформила в онлайн приложении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также перевела деньги мошенникам. Общая сумма ущерба составила 579 000 рублей.

По такой же схеме 50-летний житель Корсакова лишился 165 000 рублей. А 30-летняя невольчанка по указанию неизвестных оформила кредит в сумме 180 000 рублей и перевела мошенникам.



По всем фактам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ведется следствие,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е УМВД.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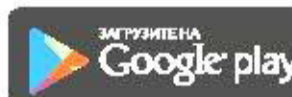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сах.ком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